

[사관학교 국어의 1인자! 국신T]

2018 사관학교 1차시험 대비 사관 1차시험 국어의 모든 것 (Part1 : 문법)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사관학교반 담임)

前 노랑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교,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감수] 비문학 교과서 독해 시리즈

Orbi Class

[1강] 2017 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문법 기출분석

11. <보기>는 접두사의 쓰임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 ㉡에 들어갈 접두사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수집한 단어 분석을 통해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의 쓰임을 탐구한다.

<수집한 단어>

새까랴다 새파랴다 셋노랴다 시꺼멓다 시퍼랴다 싹누랴다

<탐구 결과>

결합되는 어간의 첫 음절	초성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중성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접두사			㉠	㉡	

- | | | | |
|------|----|------|----|
| ㉠ | ㉡ | ㉠ | ㉡ |
| ① 시- | 셋- | ② 시- | 싹- |
| ③ 새- | 시- | ④ 새- | 셋- |
| ⑤ 셋- | 싹- | | |

[관련 개념 정리하기]

12.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자, 이번에는 보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의 용례 위에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 글상자는 보조사가 용례의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글상자는 왼쪽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보조사가 결합되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ㄱ의 예시를 보고 ㄴ의 빈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ㄱ. 철수[크려, 는, 도, 만, 쉰] 영화를 본다.	⇒	보조사 중에는 체언 뒤에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ㄴ. 철수가 멋있어[크려, 는, 도, 만, 쉰] 보이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px; width: 100%;"></div>

- ① 보조사 중에는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② 보조사 중에는 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③ 보조사 중에는 연결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④ 보조사 중에는 종결 어미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⑤ 보조사 중에는 보조 형용사 뒤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ㄱ, 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1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하고, 안긴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안은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것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보기 2 >—

ㄱ. 그는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ㄴ.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삼계탕이 그야말로 보양식이다.

- ①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를 꾸미고 있군.
- ②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를 꾸미고 있군.
- ③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군.
- ④ ㄱ의 안긴문장에는 ㄴ의 안긴문장에서와 달리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군.
- ⑤ ㄱ의 안긴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ㄴ의 안긴문장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14.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ㅊ)’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선생님 : 표준 발음법 제17항은 구개음화에 대한 발음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조사나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의 일부이거나 실질 형태소의 일부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 ㄱ.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 말이는 윗머리와 뒷머리 술을 많이 쳤다.
- 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던 그는 흙에 묻힌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 ㄷ. 그는 밭이랑 논이랑 땅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 ① ㄱ의 ‘말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겠군.
- ② ㄱ의 ‘술을’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수출]로 발음해야겠군.
- ③ ㄴ의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겠군.
- ④ ㄴ의 ‘묻힌’은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무친]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ㄷ의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겠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15.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중세 국어 자료]

:시내 훗:돈 ·터 ·숯 보르·미 기·리 :부·느·니 프·른 ·쥐 :넛 디셋 ·서리·예 ·숨·느·다
 :아디 :몬·흐·리로·다 어·느 :님궘 宮殿(궁전)·고 기·튼 지·슨 거·시 노·폰 石壁(석벽)사 아·래
 로·다
 ·어·득·흔 房(방)·엔 꺾거·쇠 ·브리 프·락·고 물·어·던 길·헨 슬·픈 ·프·리 흐르·눗·다
 여·러 가·짓 소·리 眞實(진실)사 더·와 ·피·릿 소·리 ·곤·도·소·니 ㄱ·숯 ·비치 正(정)·히
 ㄱ·호·도·다

- 두보, 「옥화궁(玉華宮)」 『초간본 두시언해』 (1481년) -

(나) [현대 국어 자료]

시내 휘도는 데 솔 바람이 길이 부나니 푸른 쥐 엿 기와 사이에 숨는다.
 알지 못하리로다, 어느 임금의 궁전인가? 남은 지은 것이 높은 석벽의 아래로다.
 어둑한 방에는 귀신의 불이 파랗고 무너진 길에는 슬픈 물이 흐르는구나.
 여러 가지 소리 진실로 저와 피리의 소리 같더니 가을 빛이 정히 깨끗하도다.

- ① (나)의 '엿'을 고려할 때, (가)의 '넛'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 ② (나)의 '임금의'를 고려할 때, (가)의 '님궘'에서 '스'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 ③ (나)의 '불이'를 고려할 때, (가)의 '브리'에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났군.
- ④ (나)의 '-는구나'를 고려할 때, (가)의 '-눗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군.
- ⑤ (나)의 '빛이'를 고려할 때, (가)의 '비치'는 이어적기 표기를 했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2강] 2016학년도 국어B 사관학교 1차시험 문법 기출분석

11. <보기>의 한글 맞춤법에 관한 자료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8항 용언들의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

1. 어간의 끝 'ㄴ'이 줄어들 적

예)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예) 낫다 : 나아, 나오니, 나왔다

!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예)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예) 가르다 : 갈라, 갈랐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예) 덕이, 같이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 ㉠ '뜰을 여기에 부어라'의 '부어라'는 어간 '붓-'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 '그만 좀 간질여라'의 '간질여라'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 '십 리는 좋이 되겠다'의 '좋이'는 어간 '좋-'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의 '게으름'은 어간 '게으르-'에 접미사 '-ㅁ'이 결합해 명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 '앞으로 자주 보자'의 '자주'는 어간 '자-'에 접미사 '-우'가 결합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 차례입니다. '역마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 아니에요, 선생님. ㉣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 네, 할아버지께서는 ㉤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셔요.

-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뵈다'를 활용하여 '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1 >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 '탈락', 없던 소리가 끼어드는 ㉣ '첨가'가 있다.

— < 보기 2 > —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ㄼ, ㄽ'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받침 'ㅎ(ㄱ, ㄷ)'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4. 'ㅎ(ㄱ,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① 제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빛다[빔따]'를 들 수 있다.
- ② 제11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닭[닥]'을 들 수 있다.
- ③ 제12항의 '1'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않던[안턴]'을 들 수 있다.
- ④ 제12항의 '4'는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났은[나은]'을 들 수 있다.
- ⑤ 제2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한여름[한녀름]'을 들 수 있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4.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 불갑했어요.

아버지 : 오는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이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 못 했어요.

아버지 :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부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러),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렀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6.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元원覺·각·익·한아·비늘·고病·뺑·헛더·니元원·覺각·이아·비元원覺·각·일호야·답사·닉·지·여·되·해다·가더·
 디·라호야·늘元원覺·각·이·마·디·몬·호·야더·디·고옴저·기元원覺·각·이그 : 답사·늘가·겨·오거·늘아·비닐·오·
 디머·즌그·르·슬므·스·게뿔·다호·대對·되·답답·호·딕·뵈다·가나·도아·비다·모리·라·호야·늘붓·그·려제아·비·
 들도로더·브·러오·니라

— <삼강행실도> '원각경부(元覺警父)' —

(나)

[현대어 풀이] 원각(元覺)의 할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더니 원각의 아버지가 원각을 시켜 (할아버지를) 들것에 지어 산에다가 던지라고 하거늘 원각이 마지못하여 던지고 올 적에 원각이 그 들것을 가져오거늘 아버지가 이르되 흥한 그릇을 무엇에 쓰려고 하니 한즉 (원각이) 대답하되 두었다가 나도 아버지를 담으리라 하거늘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여 제 아버지와 도로 더불어 왔다

- ① (가)의 '元원覺·각·익'에 쓰인 관형격 조사는 (나)에 쓰인 관형격 조사와 그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을 음결 왼쪽에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호야·늘'을 보니 (나)에 쓰이지 않는 문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뿔·다호·대'와 (나)의 '쓰려고 하니'를 통해 (가)와 (나) 모두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다·모리·라'에는 연철 표기가, (나)의 '담으리라'에는 분철 표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3강] 2016학년도 국어A 사관학교 1차시험 문법 기출분석

11.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밟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달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2. <보기 1>의 ㉠~㉢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 보기 1 > —

-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채를 선물로 보냈다.
- 어머니께서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짐을 나셨다.
- 그녀는 항상 당근은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 < 보기 2 > —

- a. ㉠, ㉡, ㉢은 체언이다.
-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관련 개념 정리하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4강] 2015학년도 국어B 사관학교 1차시험 문법 기출분석

11. <보기 1>을 토대로 <보기 2>의 ㉠~㉡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소리의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 요약>

구분	규정 내용	예시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함.	많다[만:타] 알다[알:다] 멀리[멀:리] 꼬다[꼬:다] 두어[두어]→뒤[뒤:] 기어[기어]→겨[겨:]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함.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밧다[밧:따]-밧히다[밧피다]

— < 보 기 2 > —

- 철수는 영화와 ㉠ 눈먼 사랑에 빠져 있다.
-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재치가 ㉡ 많고 슬기롭다.
- 예전에는 새끼로 줄을 ㉢ 파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 바느질을 하는데 ㉣ 감긴 실을 풀지 못해 애를 먹었다.
- 몰랐던 것을 스스로 ㉤ 알아 가는 데에 공부의 참 재미가 있다.

- ① ㉠의 ‘먼’은 둘째 음절에 있으므로 [먼]으로 짧게 발음되었군.
- ② ㉡의 ‘많-’은 첫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으로 길게 발음되었군.
- ③ ㉢의 ‘파’는 어간인 ‘꼬-’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파]로 짧게 발음되었군.
- ④ ㉣의 ‘감-’은 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감]으로 짧게 발음되었군.
- ⑤ ㉤의 ‘알아’는 어간 ‘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라]와 같이 어간 부분이 짧게 발음되었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12. <보기>의 ㄱ~ㅍ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ㅍ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ㅍ.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구분	의미 조건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ㄱ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 ①
ㄴ	그녀의 손이 아름답음.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②
ㄷ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 ③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 ④
ㅍ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 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3. <보기>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관한 국어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5절은 두음 법칙과 관련해 국어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의 첫 음절에 있는 어두음에 적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탐구 자료]

구분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한자의 본래 음
㉠	요소(尿素), 익명(匿名) 당뇨(糖尿), 은닉(隱匿)	뇨소(尿素), 녀명(匿名) 당요(糖尿), 은익(隱匿)	尿: 뇨 / 匿: 녀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역이용(逆利用)	신녀성(新女性), 공념불(空念佛) 역리용(逆利用)	女: 녀 / 念: 녀 利: 리
㉢	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 보급률(普及率), 시청률(視聽率)	규률(規律), 백분률(百分率) 보급율(普及率), 시청율(視聽率)	律: 률 / 率: 률
㉣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열력학(熱力學), 해외려행(海外旅行)	力: 렉 / 旅: 려
㉤	낙원(樂園), 뇌성(雷聲), 누각(樓閣)	락원(樂園),뢰성(雷聲), 루각(樓閣)	樂: 락 / 雷:뢰 樓: 루

- ①㉠ → 모음 '요, ㅣ' 앞에 '녀'가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녀'를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데,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②㉡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뒤에 붙어 있는 한자어는 그 첫소리가 '녀'이나 '르'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녀'이나 '르'를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③㉢ → 한자음 '률'이 모음이나 '녀' 받침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음 뒤에 위치하는 경우와 달리 '률'을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④㉣ →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뒷말의 첫소리가 '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르'를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⑤㉤ → 모음 '나, 니, 니' 앞에 '르'가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르' 대신에 '녀'으로 적어야 하는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14.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동사」

-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동사」

-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 '이르다²', '이르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과 '이르다²'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과 '이르다²'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 ㉠과 '이르다²'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관련 개념 정리하기]

15.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 ⑤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 보 기 1 >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에'나 '에서'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던 '애/에/예'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의 끝 음절에 사용된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쓰였다.

선행 체언의 끝 음절 모음	부사격 조사	사례
양성 모음	애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필씨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음성 모음	에	行宮(행궁) 에 도즈기 들어 (행궁에 도적이 들어서)
이, ㅣ	예	狄人(적인)스 서리 예 가샤 (오랑캐들 사이에 가시어)

— < 보 기 2 > —

- 저근 **빅 + ㉠** 울오리라 (작은 배에 오르리라)
- 굴형 + **㉡**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골목에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둑이 다 돌아가니)

- | | | | | | |
|---|---|---|---|---|---|
| | ㉠ | ㉡ | | ㉠ | ㉡ |
| ① | 애 | 에 | ② | 에 | 예 |
| ③ | 에 | 예 | ④ | 예 | 에 |
| ⑤ | 예 | 애 | | | |

[관련 개념 정리하기]

[5강] 2015학년도 국어A 사관학교 1차시험 문법 기출분석

11.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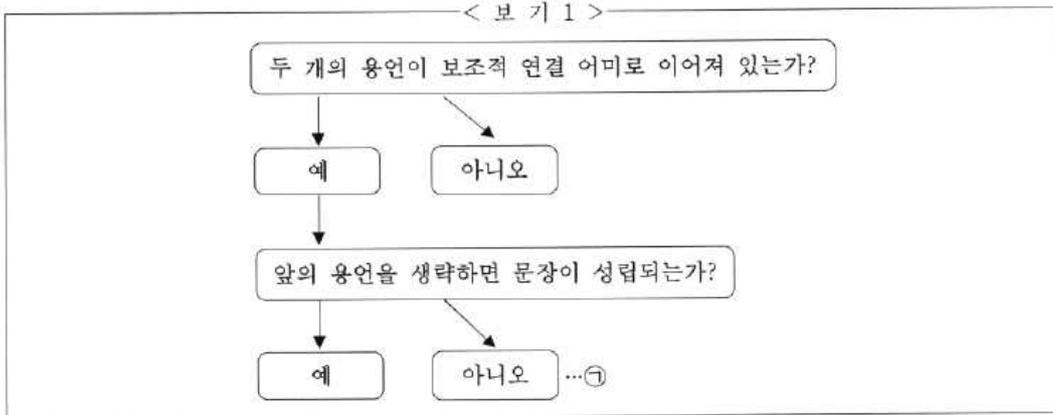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 | | |
|------------|------------|------------|
| · 발이랑[반니랑] | · 늦여름[느너름] | · 술하다[수타다] |
| · 국물[궁물] | · 좋으면[조으면] | |

- ① '발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ㅈ'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ㅇ'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좋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12. <보기 1>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2>의 ㉠-㉤ 중에서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2 >
-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 찢어 버려라.
 - 나도 책을 많이 ㉡ 읽고 싶다.
 - 잠은 집에 ㉢ 가서 자야지.
 - 그것만 좀 더 ㉣ 먹어 보자.

① ㉠, ㉡
④ ㉡, ㉢

② ㉠, ㉢
⑤ ㉡, ㉣

③ ㉠, ㉣

[관련 개념 정리하기]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 보 기 2 >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틀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는 인용절이다.
-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관련 개념 정리하기]

[Bonus 문법 개념정리 강의]

[Bonus 1강] 음운변동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ㅜ, 동음탈락)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 종합적으로, 내가 음운변동 현상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 필요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을		[옴], [남], [꼰], [바깡], [히을]
밖, 부엌		[박], [부억]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그냥 연음하여 발음**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끝소리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뺨」,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덧개 → 「덧깨」, 역도 → [역또], 젓소 → 전소 → [전쏘]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끓고 [끓:꼬], 신고 [산: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ㅌ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ㄸ, ㅌ + ㄹ → [ㅁ, ㄴ, ㅇ] + [ㄴ]

예) 국물, 남루, 독립, 섬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ㄹ/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앓는 → 알는 → [알른], 끌는 → 끌는 → [끌른], 훑는 → 훑는 → [훑른]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ㅘ, ㅙ, ㅚ, ㅜ'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먹이다 → 머기다 →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다치어→다쳐], 굳히다[구티다→구치다]

3. 탈락 / 축약

(1)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파생)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ㄱ,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 (용언)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등글다 :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 (용언) 'ㅎ'의 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
낳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앓은 [아는], 닳아 [다라]
- (용언)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긋다 → 그어, 잇다 → 이어 등
- (합성) 동음탈락 :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형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2) 자음군 단순화

- 1) ^ㅁ ㅁㅁㅁㅁㅁㅁㅁㅁ 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몫, 앉고, 외곶, 활고
- 2) ^ㄴ ㄴㅁㅁ 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 3) ^ㄹ ㄹㅁㅁ 은 불규칙적 (<보기> 활용)

(2)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ㄷ'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3) 음절의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 'ㅂ, ㄷ, ㄱ, ㅈ' + 'ㅎ' → 'ㅃ, ㅌ, ㅋ, ㆁ'
ex) 좋고 → [조코], 읊지 → [을치], 잡히다 → [자피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ex)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뵈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4. 첨가

[1]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

0. 합성어

1. 접점에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함.
2. 발음상 조건 충족 (된소리, ㄴ첨가, ㄴㄴ첨가)

- [조건1] 울림소리 + 안울림예사소리 (밤길, 눈사람, 코등)
- [조건2] 모음 + 안울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 [조건3] 모음 + 울림소리(ㄹ, ㄴ) (이몸, 코날)
-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 [조건5] 뒷말이 'ㅣ'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

- +3.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 +4.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

— <보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ㄴ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 ㄴㄴ이 발음시 덧난다.

예) 숨+이불, 눈+요기, 교육+열, 발+이랑(명사)

5. 음운변동 신유형 연습 (사관, 경찰대 등 기출유형 변형문제)

1.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 음운 변동 중, 교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논일
- ② 같이
- ③ 바깥
- ④ 믿는다
- ⑤ 물놀이

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늪 앞'은 [느 밥]으로, '젓어미'는 [저더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음식이 맛없다.[마덥따]
- ② 헛웃음만 나왔다.[허두슴]
- ③ 곁에 먼지가 묻었다.[거테]
- ④ 발 아래 눈이 있다. [바다래]
- ⑤ 꽃을 선물 받았다.[꼬슬]

3.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밧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달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4.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발이랑[반니랑] . 늦여름[느녀름] . 술하다[수타다] . 국물[궁물]
 . 종으면[조:으면]

- ① '발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ㅈ'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종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5.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홀이불 → [혼니불], 꽃잎 → [꼰닙],
 읊다 → [읍따], 헛웃음 → [허두슴]

- ① 종성의 자음이 탈락하였다.
- ② 음절 끝의 장애음이 평음으로 바뀌었다.
- ③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④ 뒤에 오는 말의 초성으로 'ㄴ'이 첨가되었다.
- ⑤ 받침으로 쓰인 폐쇄음 뒤에서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Bonus 2강] 형태소, 품사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반침의 유무로 구분]

책상 : 책상+을

의자 : 의자+를

[모음조화로 구분]

같다 : 같+았+다

먹다 : 먹+었+다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품사의 필수 출제패턴 정리]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감탄사	-
수식언	불변어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 유정명사 / 부정명사
- 보통명사 / 고유명사

※ 대로, 만큼, 뿐

- 의존명사 : 먹는 대로, 먹는 만큼 등
- 조사 : 너대로, 너만큼 등

[2] 대명사

① 인칭 대명사

-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이것만 기억하자]

미지칭, 부정칭의 구분 → 이무, 아무나, 아무거나 등을 대입하여 말이 되면 부정칭
높임과 낮춤의 재귀대명사 기억하자! 기억하자!

-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어느/누구(미지칭), 아무/누구(부정칭), 자기/당신(재귀)
- 예) [미지칭,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 누구/무엇/어디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

[이것만 기억하자]

이: 화자에게 가까운 것 자칭 그: 청자에게 가까운 것 자칭 저: 둘 다에게 멀 때

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 열쇠가 여기 있었네!

[3] 수사

①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2. 관계언(조사)

[1] 격조사 (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 자격(문장성분)을 부여, 생략가능)

- ① 주격조사 → 주어 : ~이, ~가, ~에서(단체), ~께서
- ② 목적격조사 → 목적어 : ~을/를
- ③ 서술격조사 → 서술어 : ~이다
- ④ 보격조사 → 보어 : ~이/가 + (~되다 / 아니다)
- ⑤ 관형격조사 → 관형어 : ~의
- ⑥ 부사격조사 → 부사어 : ~에, ~에서, ~에게, ~(으)로, ~와(비교) 등
- ⑦ 호격조사 → 독립어 : ~야 (중세국어 : ~하(존칭))

[2]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구분

-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겹문장이면) 접속 조사이며
 바꾸어 쓸 수 없으면(흠문장이면) 부사격 조사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나는 국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나는 비슷하다. *철수는 비슷하다.

[3] 보조조사 (어떤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 생략불가)

- ①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상대높임	잘 먹었어요.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출제패턴 정리

[1]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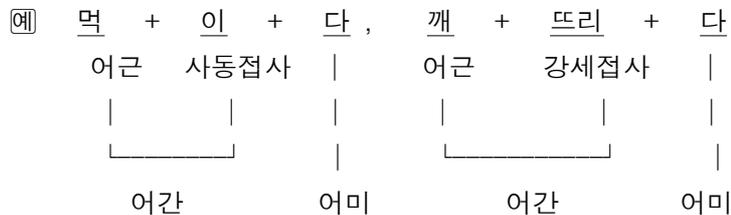
>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 서술격 조사가 있지~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2]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① 어말 어미의 갈래

- (ㄱ)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
- (ㄴ) 연결 어미 - 문장이나 구를 연결
- (ㄷ) 전성 어미 - 용언이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관형사형 전성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 명사형 전성어미 : -기, -(으)ㅁ,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② 선어말 어미

- └높임 : -시-
- └시제
 - └현재 : -는-/-ㄴ-
 - | 과거 : -었-/-았-
 - | 미래 : -겠-
 - └회상 : -더-

4. 단어의 형성 필수개념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 and로 연결되는 놈들 (남녀, 여단다 등) · 명사+명사 → 외과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 용언+용언 → 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
		종속	- and로 연결되지 않는 놈들 (돌다리, 국밥 등) · 명사+명사 → 외과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 용언+용언 → 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
		융합	- 사전적 약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약로 거듭난 합성어 (춘추=연세 광음=세월 모순=앞뒤가 맞지 않음 등)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 어미가 생략되고,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 부사+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주로 접두사,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놈
		품사 변경	주로 접미사 (떡+이→떡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사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예 : 높다 → 높다)

5. 형태소, 품사 신유형 연습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2.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든지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규칙성
- ② 언어의 분절성
- ③ 언어의 사회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창조성

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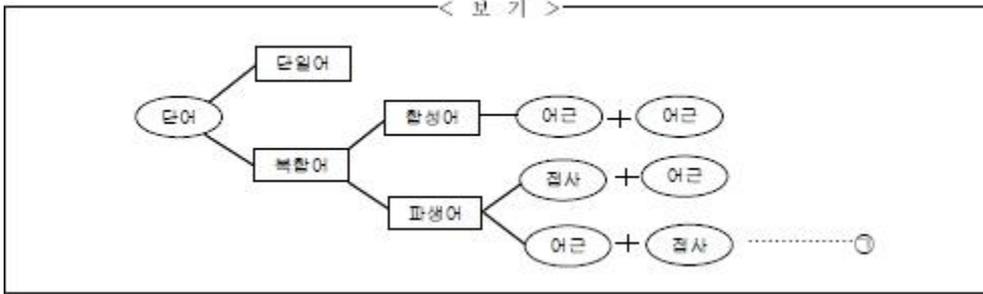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 보기 2 >

㉠ 굶주리다 ㉡ 기와집 ㉢ 덮밥 ㉣ 들어가다 ㉤ 작은집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소리
- ② 나무꾼
- ③ 멧쟁이
- ④ 바느질
- ⑤ 지우개

5.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활용을 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기본형]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묻다	묻고, 물어(← 묻 + 어) ……
• 어미가 바뀌는 경우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누르 + 어)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하얏다	하얏고, 하얘(← 하얏 + 아) ……

< 보 기 2 >

ㄱ. 걸어서 도착한 부진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ㄷ. 신록이 길어지니 멀리 있는 산이 푸르러 보이는구나.

ㄹ. 한 십 년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ㅁ.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서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한다.

- ① ㄱ의 '걸어서'는 기본형이 '걷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② ㄴ의 '지어서'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③ ㄷ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④ ㄹ의 '흘러'는 기본형이 '흐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⑤ ㅁ의 '빨개서'는 기본형이 '빨갱다'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이군.

6.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例)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조건1]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조건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조건1]

[조건2]

①	과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②	와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③	랑	저는 어머니랑 많이 닮았대요.	나는 영희랑 철수랑 영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
④	하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⑤	이며	그림이며 조각이며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7.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②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 ③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④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⑤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8.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 조사는 결합하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문장에서 격 조사의 쓰임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① '우리 형은 대학생이다.'의 '이다'.
- ②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 주신다.'의 '께서'.
- ③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에서 '이시여'.
- ④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에서 '로'.
- ⑤ '누나는 개나리하고 진달래를 좋아한다.'의 '하고'.

9. ㉡, ㉢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은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의 활용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르다' 유형: -----㉠

.'푸르다' 유형: 이르다[至], 누르다[黃]

.'부르다' 유형: -----㉡

- | | |
|-------|-----|
| ㉠ | ㉡ |
| ① 치르다 | 나르다 |
| ② 구르다 | 치르다 |
| ③ 흐르다 | 구르다 |
| ④ 기르다 | 흐르다 |
| ⑤ 나르다 | 기르다 |

10.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이제 곧 날이 밝는다.
- ㄴ.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 만세! 대한 독립 만세!
- ㄷ.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ㄹ. 평생을 함께해서 행복하였다. - 그런 이야기는 평생처음 듣는다.
- ㅁ.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 ① ㄱ의 '밝다'는 형용사이지만, '밝는다'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② ㄴ의 '만세'는 명사이지만, '만세!'의 경우에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 ③ ㄷ의 '열'과 '백'은 명사이지만, '열 사람, 백 말'의 '열'과 '백'은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 ④ ㄹ의 '평생'은 목적어로 사용되었지만, '평생 처음'의 '평생'은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 ⑤ ㅁ의 '다른 생각 말고'의 '다른'은 관형사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의 '다른'은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11. <보기1>의 ㉠ ~ ㉣에 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1>

- .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채를 선물로 보냈다.
- . 어머니께서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 그녀는 항상 당근은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보기2>

- a. ㉠, ㉡, ㉣은 체언이다.
-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Bonus 3강] 문장성분, 문장

1.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주어 파악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목적어 파악
	보어	체언+격조사	서술어 '되다 / 아니다'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격조사의 활용형태, 서술어 자릿수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서술어 자릿수와 연계하여 이해 필수적 부사어 감 잡기
	관형어	-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일 때 - 단, 서술어자릿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관형어 : 용언, 체언, 관형사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부사어 : 용언, 체언, 부사

2. 서술어 자릿수, 필수부사어

[1] 서술어의 자릿수 + 필수부사어

① 서술어의 자릿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붉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낫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어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 '넣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수어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다,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꾼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3.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홀문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문장 : 주어도 1개, 서술어도 1개 - 겹문장 :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주어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2개 이상임. · 서술절이 안겨있는 문장만 서술어가 1개임. 주어는 2개.
겹문장	안은-안긴문장	<p>[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놈을 찾자! (용언 서술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놈이 명사형태(-음, -기)면 명사절! ·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절! ·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 · 사람말을 인용했으면 인용절! - 서술절은 외워라! ‘코끼리가 코가 길다’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가 ‘되다’이다인 경우만 예외 (주어보어구조이므로)
	이어진문장	<p>[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and, but, 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 나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

4. 사동, 피동, 시제, 높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p>[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 장형 : -하게 하다 	<p>[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동문의 중의성 : 직접동 vs 간접동 - 신체일부 표현 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머리를 숙였다.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p>[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되 - 장형 : -어지다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증과동 : 단형과 장형과의 결합형태 - 사동접사 + 장형과동은 이증과동이 아님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p>[절대시제, 상대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대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 * 발화시, 사건시 개념 알아두기 		<p>[시제를 나타내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어말어미 사용 - 관형사형 전성어미 사용 - 시간부사어 사용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 패턴		중세국어
	주체높임	주어	선어말어미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 간접높임	높임대상의 소유물	선어말어미만 사용	
	객체높임	목적어부사어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상대높임	상대(칭사)	종결어미, 보조사 -요 (저, 말씀)	선어말 어미 有	

5. 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p style="text-align: center;">중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어법에 맞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6. 문장 신유형 연습

1.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 ①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 ②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 ③ 창목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④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뵈고 왔습니다.
- ⑤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2. <보기>에 나타난 국어의 경어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영희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야 한다.
- ㉡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 ㉢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 ㉣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 ㉤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 ① ㉠ :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 ③ ㉢ : 행위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기에 높임말이 사용되었다.
- ④ ㉣ :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 ⑤ ㉤ : 청자가 행동의 주체보다 높아서 주체를 높이지 못했다.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 **차례**입니다. '역마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둠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 아니에요, 선생님. ㉣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 네, 할아버지께서는 ㉤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셔요.

-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보다'를 활용하여 '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4.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 ② ㉡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 ④ ㉣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 ⑤ ㉤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5. <보기>의 대화에 쓰인 높임 표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묶은 것은?

<보기>
 손님: 구두를 사러 왔습니다만.....
 직원: 어떤 구두를 ㉠원하시나요?
 손님: 굽이 높지 않아 발이 편한 신발이요.
 직원: 네, 그럼 이 구두는 ㉡어떠신가요?
 손님: 편할까요?
 직원: 한 번 ㉢신어 보실게요.
 손님: 꼭 끼는데..... 조금 큰 구두가 ㉣있을까요?
 직원: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좋아요. 얼마예요?
 직원: 네. ㉤37,000원이십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부분의 '-시-'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보 기>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는 종업원의 말에 손님은 말문이 막혔다. “커피가 ‘나오셨다’고요? 왜 커피를 높이세요?” 손님의 말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하세요.”

마트에서는 “그 상품은 품질이세요.”, 병원에서는 “주사 맞으실게요.”, 여행사에서는 “비수기 할인 가격이세요.” 등과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허다하다. 별생각 없이 틀린 높임말을 쓰는 동안 한국어 어법이 뒤틀리고 있다.

- ① 이 옷 색상 예쁘시죠?
- ② 보라가 들어가실게요.
- ③ 부탁하신 상품이 도착하셨습니다.
- ④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이 돼요.
- ⑤ 저희는 아이스 카푸치노도 제공하세요.

[높임법 유의할 Point]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없음
하오체 (예사 높임)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합시다	하구려
하계체 (예사 낮춤)	하네	하는가?	하계	하세	하구먼
해라체 (아주 낮춤)	한다	하지?	해라	하자	하구나
해요체 (두루 높임)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 (두루 낮춤)	해	해	해	해	해

7.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어'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용언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된다.

- ㄱ. 장미가 참 예쁘다.
- ㄴ.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 ㄷ.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 ㄹ.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 ㅁ.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 ① ㄱ의 '참'과 달리, ㅁ의 '참'은 부사어는 수식하고 있다.
- ② ㄱ의 '참'과 달리, ㄹ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 ③ ㄴ의 '아주'와 ㄹ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ㄴ의 '아주'와 달리, ㄷ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이다.
- ⑤ ㄷ의 '애인에게'와 ㅁ의 '많이'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8.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 ㄴ. 아주 큰 서점이 생겼다.
- ㄷ.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 ㄹ.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 ① ㄱ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② ㄱ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군.
- ③ ㄴ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④ ㄷ의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겠군.
- ⑤ ㄹ의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줄 수 있겠군.

9.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 보 기 2 >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틀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읊기는 인용절이다.
-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10.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동사」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동사」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¹', '이르다²', '이르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¹' ㉠과 '이르다²'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1.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교부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렀다.』

- ㉠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2. <보기>의 ㄱ~ㅁ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ㅁ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ㅁ.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구분	의미 조건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ㄱ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①
ㄴ	그녀의 손이 아름답음.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②
ㄷ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③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④
ㅁ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14. 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단 어	문 장
①	들르다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들리다	어머니는 명절에 내려온 아들에게 음식을 잔뜩 들려 보냈다.
②	겨루다	그는 1차 예선을 통과해서 16명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했다.
	겨누다	나는 총을 숲 쪽으로 겨누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③	그슬리다	그녀는 올여름 햇볕에 살을 너무 그슬렸다.
	그을리다	어젯밤에 졸다가 촛불에 머리를 그을렸다.
④	늘리다	우리 회사는 주차장을 더 넓게 늘렸다.
	늘이다	그는 늘였던 고무줄을 재빨리 놓았다.
⑤	받치다	책장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앞쪽에 종이를 접어서 받쳤다.
	받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받혔다.

15.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 연필의 장점은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
- ② 동생은 5년 동안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 ③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 ④ 돌이켜 회고해 보면 우리는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 ⑤ 가정은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적 덕목을 계발하는 터전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 ㉡ 동생은 새 자전거를 샀다.
- ㉢ 누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
- ㉣ 경찰인 형은 휴가에나 볼 수 있다.
- ㉤ 나는 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

- ① ㉠에서 명사가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② ㉡에서 관형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③ ㉢에서 명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④ ㉣에서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⑤ ㉤에서 동사의 명사형이 관형어로 쓰였군.

17.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 이것은 성린이가 읽던 책이다.
- ㉢ 항상 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 ㉣ 비가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 ㉤ 성연이는 밥을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다.

- ①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②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 ③ ㉢은 전성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절이 주어로 쓰인 겹문장이다.
- ④ ㉣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한 겹문장이다.
- ⑤ ㉤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한 겹문장이다.

18.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기차가 발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 ② 나무 밑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 ③ 그날 이후로 철수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 ④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 ⑤ 박 선생이 (중략) 농장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다스릴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19.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빨래의 물기를 완전히 탈수하여 널어라.
- ② 다 지난 문제를 새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 ③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쉬이 믿겨지지 않았다.
- ④ 훈련은 나를 힘들게도 하였지만 보람을 주기도 하였다.
- ⑤ 키는 작달막하나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여간 다부진 몸매였다.

[Bonus 4강] 중세국어

1.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상형)	가획자 (가획)	병서자	이체자 (이체)
어금닛소리	ㄱ	ㅋ	ㄱㅍ	ㅇ
혓소리	ㄴ	ㄷ, ㅌ	ㄷㅌ	ㄹ
입술소리	ㅁ	ㄴ, ㄹ	ㅁ	
잇소리	ㅅ	ㅈ, ㅊ	ㅈㅊ	ㅅ
목소리	ㅇ	ㅎ, ㅎ	ㅎㅎ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ㅁㅁ, ㅁㅌ, ㅁㅊ, ㅁㅅ 등)

2. 중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
天(양성 모음)	·	ㅏ, ㅑ	ㅓ, ㅕ
地(음성 모음)	—	ㅓ, ㅕ	ㅗ, ㅛ
人(중성 모음)		·	·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8중성,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

2. 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

- ①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
-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字쫙롤(15C)>자를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ㅼ디(15C)>펴지, 고터 > 고쳐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물(15C)>스물, 무지개 > 무지개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예) ㄷᆞᆫᆞᆫ에 달아(15C)>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예) 文문字쫙와로(15C)>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ㅇ'	예) ㅎ·배(15C)> 할 바가, ㅍ > 산이, 새미 > 새미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예) 我后를 / 天下를

-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변화	예)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가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예) 놈: 사람(15C)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이어 적기(연철)	끝어 적기(분철)	적기(중철)
말씀미	말씀이	말씀미

- ⑪ 받침 표기

중성부용초성	8 종성법	7 종성법	중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꺄	꺄	꺄	꺄

- ⑪ ㅎ 종성체언
- ⑫ ㄱ 종성체언
- ⑬ 높임법의 변화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 ⑭ 병의 변화 예) 새빙->새우, 더빙->더워
- ⑮ 명사형 어미 '움/움' 예) 쑤메 > 쓰+움+에

3.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ㅞ	ㅟ	ㅠ	ㅢ
a	eo	o	u	eu	i	æ	e	œ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ㅞ	ㅟ	ㅠ	ㅢ	ㅣ	ㅤ	ㅥ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w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 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 로 적는다.

[붙임 2] ‘ㄹ’ 은 모음 앞에서는 ‘r’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 로 적는다.

단, ‘ㄹㄹ’ 은 ‘ll’ 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4.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1.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철수는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써비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표기는 써비스가 아닌 서비스이다. 어두에서 된소리인 외래어들은 예사소리로 적었다. 예를 들어 '버스'가 [빠스]로 발음되지만, 버스로 적는다. 왜 [빠스]를 버스로 표기할까?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 ②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 ④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

2. <보기>를 참조하여, 한글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면?

<보기>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 'ㄱ, ㄷ, ㅂ'은 어두나 모음 앞에서 'g, d, b'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① 옥천 Ogcheon ② 백암 Paegam ③ 설악 Seolak
- ④ 울릉 Ulleung ⑤ 대관령 Daegwanlyeong

3.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元원覺·각·익·한아·비늬·고病·뺱·헛더·니元원·覺·각·이아·비元원覺·각·일·헛야·담사·늬·지·여·외·해다·가더·다·라·헛야·늘元원覺·각·이·마·디·문·헛·야·더·디·고·옴·저·괴元원覺·각·이·그 : 담사·늘·가·저·오·거·늘·아·비·날·오·뒤·며·즌·그·르·슬·므·스·게·뽏·다·흔·대·對·되·뽏·답·호·되·뽏·다·가·나·도·아·비·다·모·리·라·헛·야·늘·뽏·그·려·제·아·비·를·도·로·더·브·러·오·니·라

— <삼강행실도> '원각경부(元覺警父)' —

(나)

[현대어 풀이] 원각(元覺)의 할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더니 원각의 아버지가 원각을 시켜 (할아버지를) 들것에 지어 산에다가 던지라고 하거늘 원각이 마지못하여 던지고 올 적에 원각이 그 들것을 가져오거늘 아버지가 이르되 흥한 그릇을 무엇에 쓰려고 하니 한즉 (원각이) 대답하되 두었다가 나도 아버지를 담으리라 하거늘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여 제 아버지와 도로 더불어 왔다

- ① (가)의 '元원覺·각·익'에 쓰인 관형격 조사는 (나)에 쓰인 관형격 조사와 그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을 음절 왼쪽에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헛야·늘'을 보니 (나)에 쓰이지 않는 문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뽏·다·흔·대'와 (나)의 '쓰려고 하니'를 통해 (가)와 (나) 모두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다·모·리·라'에는 연철 표기가, (나)의 '담으리라'에는 분철 표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보기>의 '히읃 종성 체언'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 '갈[刀], 내[川], 뫼[山], 안[內], 우[上]' 등은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히읃 종성 체언'이다.

- 갈 [刀] : 갈히(갈ㅎ+ 이), 갈과(갈ㅎ+ 과), 갈쁘기(갈ㅎ+ 뿌기)
- 내 [川] : 내해(내ㅎ+ 해), 내토힌(내ㅎ+ 도), 냇물(내ㅎ+ ㅅ+ 물)

현대 국어에서 '안팍', '살코기', '수평아리' 등은 '히읃 종성 체언'의 자취가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 안팍(안ㅎ+ ㅍ), 살코기(살ㅎ+ 고기), 수평아리(수ㅎ+ 병아리)

- ① 중세 국어의 '갈히', '내해'는 히읃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에 연음된 경우이군.
- ② 중세 국어의 '갈과', '내토힌'는 히읃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의 초성과 축약된 경우이군.
- ③ 중세 국어의 '냇물'은 히읃 종성 체언이 관형격 표지인 'ㅅ' 앞에 위치하여 'ㅎ'이 탈락된 경우이군.
- ④ 현대 국어의 '안팍', '살코기'는 히읃 종성 체언이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된 경우이군.
- ⑤ 중세 국어의 '갈쁘기'와 현대 국어의 '수평아리'는 히읃 종성 체언이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ㅎ'의 음가가 소멸된 경우이군.

5. 다음의 ㉠~㉥를 토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어 역
㉠	부토힌 本來 장차 니르시리어늘	부처께서 본래 장차 말씀하실 것이거늘
㉡	부터웃 보스 ㅅ면	부처를 ㅅ면
㉢	太子ㅅ 머리에	태자의 머리에
㉣	우리들토힌 舍利를 더러 주쇼셔	우리들도 사리를 덜어 주십시오.
㉤	大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대왕이시여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 ① ㉠의 '니르시리어늘'과 '말씀하실 것이거늘'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의 '보스 ㅅ면'과 'ㅅ면'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太子ㅅ'과 '태자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관형격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주쇼셔'와 '주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大王하'와 '대왕이시여'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높임의 의미를 지닌 호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onus 5강] 문법에 출현할 긴 <보기> 대비 훈련1

[5강 - 1] 비문학+문법(품사조사)

주격 조사는 '가'와 '이'이다. 앞의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의 경우엔 '가'를 쓰고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일 때는 '이'를 쓴다. 본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하나였는데 폐음절 뒤에서는 '이'가 온전히 형태를 보존했고, |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선 앞의 모음과 어울려 이중 모음을 이루었으며, | 모음 뒤에선 제로 형태*를 지녔다. 이 '이'가 개음절 뒤에서 '가'라는 이형태(形態)를 취하게 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였다. 개음절 뒤에서 '이'가 청각적으로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가 새롭게 등장한 한 원인이었다고 대개는 추정한다.

그러나 '가'와 '이'가 한국어 사용 지역 전체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서북 지방의 방언에서는 '소가 달아났어요'를 '소래 달아났어요'로 나타내는데 이는 주격 조사로 '래'가 사용된 경우이다. 황해도 북부 지방에서는 주격 조사로 '라'가 쓰이기도 한다. '철수라 마당에 있니?'에서 '철수라'는 '철수가'인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특정한 단어 아래서 주격 조사 '라'가 보인다. '하루리'에서 '리'는 본질적으로 '이'와 다름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루가'로 이해된다. '리'는 중세 국어에서 ㄹ첨가 현상이 일어나 형성된 조사로서 제주도가 언어의 변화가 적고 옛 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하루(하루의 옛말)'의 주격인 '하루리'가 '하루리'로 남아있는 데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의 '래', '라' 등은 역사적으로 '이'보다는 나중에, 그리고 '가'보다는 앞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 지방의 일부 방언에서는 지금도 개음절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아니라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코이와 저래?'에서 '코이'는 '코가'인데 역시 중세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음절로 끝났으면서도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는 명사 바다, 하나, 네모 등은 모두 중세어에서 단어 끝에 'ㅎ'을 보유하고 있던 말들이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 ㅎ이 숨어 있지만 뒤에 조사가 붙을 때는 그 ㅎ이 나타나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에서 '히'는 단어의 'ㅎ'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주격 조사가 결합된 '바다히' 외에도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바다해', '바다홀', '바다히니' 따위로 변하곤 한다.

함경도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가'가 겹쳐진 형태인 '이가가' 사용되기도 한다. '당신 딸이가 찾아왔슴메?'에서 '딸이가'는 '딸이'라는 말로 '이'와 '가'가 합쳐진 이중 주격 조사 '이가가'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앞의 '이'를 주격 조사의 일부로 볼지, '동찬이의'의 '-이'처럼 접미사로 볼지는 아직 확정하기는 힘들다. 반면 '내가', '네가'에서 보이는 '내', '네'는 모두 '나', '너'에 주격 조사 '이'가 녹아들어 만들어진 변이 형태인 것은 틀림없다.

* 형태 : 요소가 생략되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

1. 글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언어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언어는 추상적인 관념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된다.
- ③ 언어는 같은 부류의 사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추상화한다.
- ④ 언어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매체이다.
- ⑤ 언어는 연속적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2.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제1장> ㉡스미 깊은 물은 ㄱ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1447 간(刊), '용비어천가'
(바) ㉢나라히 파망흐니 외과 ㄱ롬뿐 잇고 갓 안 보매 플와 나모뿐 기뻐도다	- 1841년 간(刊), '두시언해'
(따) ㉣공지 증즈드려 닐러 갈아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솔한 부모의 받즈온 거시라 -- <효경(孝敬)>	- 1586년 간(刊), '소학언해'
(래) 동리 움물터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비롯하였다. 정주 ㉤엄마래 굶기 밥먹듯한단는 것인데	- 백석, '그 모(母)와 아들'

- ① ㉠은 주어로서 중세어의 원래 주격 조사가 '이'임을 알게 한다.
- ② ㉡은 '샘이'로 '침+이'로 분석되는데 '이'도 주격 조사에 해당한다.
- ③ ㉢이 주어라면 '나라'는 단어의 끝에 'ㅎ'을 가지고 있던 말이다.
- ④ ㉣에 쓰인 'ㅣ'는 폐음절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쓰인 주격 조사이다.
- ⑤ ㉤의 주격 조사를 보면 서북 지방의 방언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이가'와 '누구래'를 보면 어느 지방 사람이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군.
- ② 우리가 쓰는 '제가'에서 '제'도 '내'의 경우처럼 '저'에 'ㅣ'가 결합된 말이군.
- ③ '바다해', '바다홀', '바다히니' 등의 경우도 주격 조사가 결부된 말들이군.
- ④ '이' 외에 '가'가 주격 조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했기 때문이군.
- ⑤ 'ㅎㄹ리'는 제주도 말에 옛 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단어로군.

[5강-2] 비문학+문법(형태소)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을’과 ‘를’을 들 수 있는데, ‘책을’과 같이 앞에 자음 환경이 올 때는 ‘을’의 형태로, ‘차를’과 같이 모음 환경이 나타날 때는 ‘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 형태소가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교체’라고 하며, 교체에 의해 달라진 하나하나의 형태를 ‘이형태’라고 한다. 교체에 의해 나타난 이형태는 각각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같다.

일반적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서로 분포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자.

- ㄱ. 표범이 토끼를 잡았다.
- ㄴ. 독수리가 물을 먹었다.

ㄱ. ㄴ에서와 같이 ‘이’가 쓰이는 환경에는 ‘가’가 쓰일 수 없고, ‘를’의 환경에 ‘을’이 나타날 수 없으며, ‘-았’이 쓰이는 환경에는 ‘-었’이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가’, ‘를’과 ‘을’, ‘-았’과 ‘-었’은 각각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의미가 같은 형태들이 서로 같은 환경에 나타나지 못하는 분포적 특성을 상보적 분포 또는 배타적 분포라고 한다.

이형태의 교체 중 대표적인 것은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이다. 이 교체는 선행 음운이 모음이냐 자음이냐, 또는 선행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냐 하는 음운적 분포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체이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보조사, 시제 형태소 등의 교체는 대개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교체로,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가 있다. 이 교체는 어떤 특성의 형태에 따라 교체되는 현상이다. ㉠오너랴, ‘보아랴’에서 ‘-너랴’와 ‘-아랴’의 교체는, 일부 명령형 어미의 경우 음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특성의 어간 형태소에 따라 교체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의미적 조건에 의한 교체도 있다. 이 교체는 앞에 오는 형태의 의미론적 속성에 따라 일어나는 교체이다. ‘철수에게 물을 주어라.’와 ‘나무에 물을 주어라.’를 보자. ‘에게’와 ‘에’의 교체를 보면 음운적 조건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형태적 조건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는 이들의 형태가 결합하는 앞의 명사가 가지는 유정성(情性) 여부의 의미 자질 때문이다. ‘철수’는 [+유정성]의 자질을, ‘나무’는 [-유정성]의 자질을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1. 글로 보아 ‘이형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② 이형태의 교체 사유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군.
- ③ 형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도 의미는 서로 같겠군.
- ④ 의미적 조건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군.
- ⑤ 보조사의 경우에는 의미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는군.

2. ㉠을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보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어간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 ② 어미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③ 특수하게 사용되는 어미이기 때문에
- ④ 이형태의 교체가 없기 때문에
- ⑤ 동일한 모음 환경인데도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3.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형태 교체 사례들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3 점]

가

- . 여기를 보아라. / 깊이 묻어라.
 나. 글을 쓰게 하였다. / 시를 지었다.
 다. 오늘 날씨는 좋다. / 내일은 꼭 가겠다.
 라. 이것을 할아버지께 드려라. / 저것을 형에게 주어라.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의미적 조건에 의한 교체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가
③	다	나, 라	가
④	가, 다	나	라
⑤	나, 라	가	다

[5강-3] 비문학+문법(어미/접사)

문장이 다른 문장에 내포(包)되었을 때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어미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명사화 요소를 ‘명사형’이라 한다.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사용된다. 물론 의존명사 ‘-(ㄴ/는/ㄹ)’ 것에 의한 명사화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명사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으)ㄴ’과 ㉡‘-기’는 그 쓰이는 환경이 달라서 서술어에 따라 이 두 요소가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 (1) 집에 {왔음/ *왔기} 분명하다.
- (2) 아이들은 말을 {*배움/ 배우기} 쉽다.

(1)의 ‘분명하다’와 (2)의 ‘쉽다’는 평가적 상태성을 띤 서술어이다. 그러나 (1)에서는 ‘-기’가 오기가 어렵고 (2)에서는 ‘-음’이 사용되기 어렵다. 즉 ‘-(으)ㄴ’은 가정적(假定的)인 일에 쓰이는 반면, ‘-기’는 미정적(未定的) 일에 선택됨을 볼 수 있다.

- (3) 영화는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거림 / *서성거리기} 보았다.
- (4) 나는 네가 꼭 {*성공함 / 성공하기} 바란다.

(3)처럼 ‘-(으)ㄴ’ 명사형이 목적적으로 쓰일 때는 ‘발견, 지각, 인식, 정보 전달’ 따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어울리는 반면, (4)와 같이 ‘-기’ 명사형이 목적적으로 쓰일 때는 ‘소망, 호오(好惡), 시작, 명령, 약속 따위 의미를 나타내는 무리의 서술어와 잘 어울린다. 물론 ㉢‘-기’와 잘 어울리지만 ‘-(으)ㄴ’과 어울리는 서술어도 일부 있다. 가령, ‘그들은 서로 {만나기를 / 만남} 꺼렸다.’와 같이 선히를 드러내는 서술어의 일부는 두 명사형 이 모두 쓰일 수 있다.

한편, ‘-(으)ㄴ’, ‘-기’ 형태의 명사형은 모두 ‘-은(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 (5) 책은 천천히 {읽음/ 읽는 것} 좋다.
- (6) 농부는 비가 {오기를/ 오는 것} 바란다.

(5)에서 ‘-(으)ㄴ’ 형태의 명사형은 현대어, 특히 구어에서는 잘 안 쓰이는 경향이 있으며 서술어의 어간에 ‘-았-, -었-’이 함께 쓰일 때 자연스럽게, ‘-은(는) 것’으로 대체한 경우가 더 잘 쓰인다. 그러나 (6)의 ‘-기’ 형태의 명사형은 ‘-은(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대등하게 공존하며 사용된다.

이와 같이 명사형 어미 ‘-(으)ㄴ’, ‘-기’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 두 요소는 서술어에 따라 의미상 차이를 보이며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국어에서는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면 ‘-(으)ㄴ’보다는 ‘-기’가 더 널리 쓰이고 있다.

㉣ *표시는 잘못된 표현을 의미함

1. 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p>가</p> <p>. ㉠은 완료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성의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 ㉠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주로 쓰이므로 사실성의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 ㉡은 미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미래성의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 ㉡은 ㉠보다 현대어에서 잘 안 쓰이는 경향이 있다. 마. ㉠과 ㉡은 모두 구어에서 ‘-은(는) 것’으로 대체되지만 ㉠을 ‘-은(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드물다.</p>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라
- ④ 나, 다, 마
- ⑤ 다, 라, 마

2.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a. 일을 한 그가 칭찬을 받음은 마땅하다.
- b.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 c. 우리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기를 무척 기대했다.
- d. 이 일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간에 망치기 쉽다.

- ① 'a'의 '받음은'을 '받는 것은'으로 대치하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 ② 'b'의 서술어 '깨달았다'가 인식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으)ㄴ'과 잘 어울린다.
- ③ 'c'에서 '-기'가 선택된 것은 서술어 '기대했다'가 소망을 드러내는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 ④ 'd'에 '-기'가 쓰이고 있으므로 '쉽다'의 어간에 '-었-'이 붙어야 한다.
- ⑤ 'b'의 '붉어짐을'과 'c'의 '사람이기를'이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다.

3. ㉠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그는 사랑이 {슬픈 것이기를 / 슬픈 것임을} 몰랐다.
- ② 그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기를 / 있음을} 좋아했다.
- ③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기를 / 당황했음을} 알았다.
- ④ 그녀가 혼자 일을 {저질렀기가 / 저질렀음을} 드러냈다.
- ⑤ 우리는 내일 이른 아침에 {떠나기로 / 떠남을} 슬퍼했다.

[Bonus 6강] 문법에 출현할 긴 <보기> 대비 훈련2

[6강-1] 비문학+문법(탈락, 첨가)

중의 어떤 음이 다른 형태소를 만나서 또는 스스로 그 형태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생략(略), 또는 탈락(脫落)이라 한다. ‘술+나무→소나무’, ‘달+달+이→다달이’ 등에서 보듯이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좋은 예이다. 역사적으로도 ‘알팍다’의 ‘ㄹ’이 탈락하여 오늘날의 ‘아프다’가 된 예 등이 있다.

생략은 단어의 첫소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끝이나 중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어두음 생략’, ‘어말음 생략’, ‘어중음 생략’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 ‘밭, 씨’의 어두음 ‘ㅂ’은 오늘날 ‘좁쌀, 볍씨’에 그 자취가 남아 있듯이 발음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세에는 탈락하고 말았다. 이는 어두음 생략의 예가 될 것이다. 어말음 생략의 예로는 ‘거우루>거울, 고마 >곰’처럼 어말의 모음이 탈락한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어중음 생략의 예로는 ‘알팍다 > 아프다’나 ‘기락마>길마*’와 같이 역사적인 변화의 예도 있고, ㉠ ‘쓰어라→씨러, 푸었다→뻘다’와 같은 현대 국어에서의 예도 있다.

생략 중 같거나 비슷한 음 또는 음절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특별히 동음 생략이라고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 ‘이르러, 이르니, 이르면’의 중세 국어에서의 활용형은, ‘니를’을 어간으로 하여 ‘니르러, 니르르니, 니르르면’이었는데, ‘-르르-’처럼 같은 소리가 겹친 경우에는 ‘르’ 하나를 탈락시켰다. 이 현상은 동음 중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깨고 발음하기도 쉽게 하려는 현상으로 해석되는데, 생략은 전체적으로 발음에 드는 노력을 줄이려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현상이다.

생략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없던 음을 덧붙이는 현상이 있다. 이를 첨가(添加)라 한다. ‘고치다’를 ‘곤치다’로 말하는 방언이 있는데, 여기에 ‘ㄴ’이 삽입된 것이 그 예이다. 오늘날의 ‘던지다’의 옛 형태는 ‘더디다’인데, 여기에도 ‘ㄴ’이 삽입된 첨가 현상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첨가는 발음의 노력을 더 들이더라도 어형이 너무 짧아 안정성이 적은 것에 안정성을 높여 주기도 하고, 또는 발음하기가 뻑뻑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엄+이 >어미, 그럭+이>그러기>기러기, 길+웅>기둥’ 등은 전자의 예이다. 이름 뒤에 ‘순이, 철이, 수돌이’처럼 ‘이’를 첨가하는 것도 이와 동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디다>더지다>던지다’나 ‘소+아지>송아지’ 등의 예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 :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

1.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점]

- ① 생략과 첨가의 개념
- ② 생략과 동음 생략의 차이
- ③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 ④ 생략과 첨가 현상의 제약 조건
- ⑤ 생략과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보기

- . 하얗+ㄴ→하얀, 하얗+면→하야면
- ㄴ. 하얗+게→하얗게, 하얗+고→하얗고
- ㄷ. 나라ㅎ>나라
- ㄹ. 죠히>조이 >중이

- ① ㄴ은 현대 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생략의 예이다.
- ② ㄹ은 생략과 첨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 ③ ㄱ과 ㄴ으로 보아, 음운 환경에 따라 ‘ㅎ’이 생략되기도 하고 생략되지 않기도 한다.
- ④ ㄱ과 ㄷ은 어말음 생략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ㅎ’이 생략된 역사적인 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3. [보기] ㉠과 비교하여 내린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

- → 봐라, 주어라 → 줘라
- 피어서 → 펴서, 하시었다 → 하셨다

- ① [보기]는 없던 음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과 다른 음운 현상이다.
- ② [보기]는 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 다른 음운 현상이다.
- ③ [보기]는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 ④ [보기]는 비슷한 음을 탈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 ⑤ [보기]는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6강-2] 비문학+문법(시제)

(制)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이다. 원래 시간은 연속적인 자연의 흐름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연속적인 대상을 언어를 통하여 분절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시간도 언어를 사용하여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대개 문법에서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나누는데, 사실 이러한 3분법도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분류 방식도 있고, 심지어 국어에 시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 것을 보면, 시제라는 문법 범주의 작위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시제의 구분은 문법적 설명력을 얼마나 갖느냐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제는 발화시(發話時)와 사건시(事件時)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발화시는 화자가 특정한 문장을 발화하는 시간으로, 항상 현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서 사건시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시제를 절대 시제라고 하고, 안은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에서 주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를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국어의 시제는 시간 부사어,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된 형태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한편, 시간 표현과 관련된 또 다른 문법 기능으로 소위 상(相)이라는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상(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동작상(動作相)이라고 한다. 동작상은 크게 진행상(進行相)과 완료상(完了相)으로 나눈다. 진행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완료상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오던 어떤 동작이 발화시에 완결되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어의 동작상은 보조 용언이나 연결 어미의 일부를 통해서 실현된다.

1.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시제는 연속적인 실체로서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 ② 언어는 연속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대상을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 ③ 상대 시제는 주문장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 ④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의 양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완료상은 과거의 어떤 동작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2. [보기]의 ㉠~㉥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

- 이맘때쯤은 비가 많이 ㉠오겠지.
- 지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다.
-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놀고 있다.
- 여태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넌 내일 학교 가면 ㉤훈났다.

- ① ㉠는 발화시가 사건시를 앞서기 때문에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 ② ㉡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③ ㉢는 절대 시제로는 과거 시제, 상대 시제로는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④ ㉣는 동작이 현재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진행상에 해당한다.
- ⑤ ㉤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시제로는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6강-3] 비문학+문법(중세국어)

우리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디자인된 한글 서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글 디자인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기원을 찾으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글에는 디자인의 고전적 원리인 도상성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ㄱ’은 혀가 고부라지는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에 착안해 만들어진 기하학적 문양이다. ‘ㄱ’이나 ‘ㅇ’처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점, 선, 동그라미 등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디자인된 문자이다.

세종은 기하학적 문양 속에 우주의 질서를 담으려 했다. 우주의 질서라는 것은 근원적인 것인데, 모든 형태들은 근원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점과 선으로 환원된다. 한글은 이러한 근원적 요소들이 합성되어 디자인된 문자이다. 천지인(地人)을 의미하는 ‘·, —, |’ 등의 기본 글자를 토대로 모든 모음자가 합성되었으며, 자음자들도 수직선, 수평선의 합인 ‘ㄱ, ㄴ, ㄹ’, 사선과 역사선의 합인 ‘ㅅ’, 우주의 원융함을 표상하는 ‘ㅇ’ 등의 다섯 가지 기본 글자를 토대로 합성되었다.

한글 서체의 원형은 점, 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 기하학적인 도안들이 네모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에 기원한다. <용비어천가(龍飛細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 등에서 발견되는 네모꼴이 바로 한글 서체의 원형이다. 한글의 네모꼴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 음절은 모음에 자음이 결합해 이루어지는데 모음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모아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부서(附書)라고 하는데, 중성인 모음을 초성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붙여 쓰는 규정이다. 부서는 여러 기하학적 문양으로 우주의 질서를 네모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구현된 한글의 기하학적 디자인은 세상을 네모꼴로 이미지화했던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을 미학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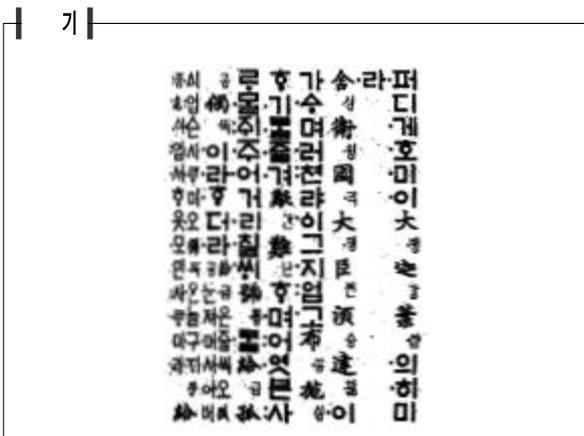
한글은 네모꼴로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축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은 흔히 ‘노사모’로 축약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한글과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의 음을 표기하는 음소문자인 영어는 음절 단위로 축약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유(U)-스테(Sta)-오브(of)-아(A)’라고 하지 않는다. 쓰는 방향에 제한이 없는 점도 네모꼴인 한글의 장점이다. 알파벳은 가로쓰기밖에 할 수가 없다. 글을 쓰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글은 가로쓰기 외에 세로쓰기도 가능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네모꼴이 한글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모라는 표준화된 틀에 갇혀 있는 한글은 답답한 느낌을 자아낸다. 네모꼴로부터의 탈출은 한글 서체 개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글은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이 네모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제약은 한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글의 표준화된 형태인 네모꼴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함과 아울러 장점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① 한글은 표준화된 형태로부터 벗어나 상상력을 토대로 다채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1.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점과 선으로 환원될 수 있다.
- ②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서는 도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③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는 상징적 의미들 지닌 글자들이 있다.
- ④ 한글의 자음은 음절에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소리 값이 다르다.
- ⑤ 한글의 모음은 기본자와 기본자를 토대로 합성된 글자들로 나뉠 수 있다.

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로쓰기밖에 할 수 없는 영어의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글을 쓰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군.
- ② 점, 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의 기하학적 도안들이 네모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우주 질서를 구현해 보여주고 있군.
- ③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글꼴들로부터 세상을 네모꼴로 이미지화했던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군.
- ④ 네모꼴의 음절이 독립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글이 음절 단위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이군.
- ⑤ 개개의 음절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실로부터 자음이 음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군.

3. 과 같이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② 한글은 부서 방식을 사용해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이다.
- ③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모두 동일한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④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의 음을 표기하는 음소 문자이기 때문이다.
- 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 다양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